

매일묵상일기

가정예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예배자료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복된 마음

2026년 2월 12(목)

- 찬송 (205장) 다함께
- 기도 가족 중에서
- 성경 (마태복음 13:1~17) 다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13:17)

- 묵상자료 인도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일곱 가지의 천국 비유를 소개하는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불립니다. 첫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가 뿌려진 땅의 상태와 그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에 대한 설명은 18~23절에 나옵니다. 씨는 '천국 말씀'을,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비유에서 보여주듯,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의 반응은 제각기 다르며 부정적인 결과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씨의 생명력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히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 복음은 인간적 실패와 저항을 뚫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비유'는 대개 '어려운 사실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실에 빗대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어떤 이들에게는 수수께끼처럼 알 수 없는 비밀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완악해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둔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죄악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눈과 귀는 천국의 가치와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 청력과 시력을 지닌 자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사람들이 천국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내게는 천국비유를 듣고 깨닫는 영적 감각이 있나요?

- 기도 인도자

주님, 말씀을 받는 제 마음은 과연 어떤 땅인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가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악하고 딱딱한 제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쪼개시고 갈아엎어 주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며 결실하는 참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함께